

## KWIS와 K-WAIS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

김 홍 근<sup>†</sup>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K-WAIS가 출간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상 현장에서는 KWIS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KWIS의 지속적 사용은 K-WAIS의 타당도에 대한 몇 가지 의심들에서 비롯된다. 이 의심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K-WAIS로 측정된 IQ가 KWIS로 측정된 IQ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평 지능검사의 IQ가 구판 지능검사의 IQ에 비해 낮게 산출되는 것은 세대별(또는 cohort별) '지능 상승'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인 현상이지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처럼 세대별 지능 상승이 급격한 나라에서는 신평 지능검사의 IQ가 구판 지능검사의 IQ에 비해 약간 낮은 것이 아니라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해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K-WAIS로 측정된 IQ가 지나치게 낮다는 견해는 KWIS로 측정된 IQ가 올바르다는 선입전에 기반한 일종의 '착시(illusion)'현상이다. 한국의 급격한 세대별 지능 상승을 고려할 시 40년전에 제작된 규준(즉 KWIS 규준)에 근거한 지능평가는 극히 높은 수준의 '과대평가'로 귀착된다. 그러므로 K-WAIS를 사용하여 지능을 평가할 것이 적극 권장된다.

주요어 : 지능검사, 표준화, 규준

---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 홍 근 /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 대구시 남구 대명3동 2288  
TEL : 053-650-8295 / FAX : 053-650-8259 / E-mail : hongkn@daegu.ac.kr

## 서 론

Wechsler 지능검사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인용 지능검사이다. Wechsler 지능검사의 초판인 W-BIS(Wechsler-Bellevue Intelligence Scale)는 1939년에 출간되었다. 이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검사의 재표준화가 이루어졌는데, 1955년에는 WAIS(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1981년에는 WAIS-R(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Revised), 1997년에는 WAIS-III(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III)가 각각 출간되었다. 국내에서의 Wechsler 지능검사 사용은 전용신, 서봉우 및 이창우가 WAIS를 번안하여 KWIS(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라는 이름으로 1963년에 출간한 것이 효시가 되었다. 이후 염태호, 박영숙, 오경자, 김정규 및 이영호가 WAIS-R을 번안하여 K-WAIS(Korean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라는 이름으로 1992년에 출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국내 Wechsler 지능검사의 사용에서 특이한 점의 하나는 '신판'인 K-WAIS가 출간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판'인 KWIS가 일부 임상 현장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KWIS를 측정 도구로서 사용한 논문들이 '한국임상심리학회지: 임상'을 비롯한 관련 학술지들에 계속 간행되고 있음에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또한 임상가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적인 조사에서도 KWIS를 사용하는 비율이 무시 못할 수준에 이른다.

이 논문은 현재 국내 임상현장에서 KWIS와 K-WAIS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가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고찰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에서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로 국내의 맥락과 임상심리검사에서의 Wechsler 지능검사의 중요성은 거의 절대적인 수준이다(Harrison, Kaufman, Hickman, &

Kaufman, 1988; Kaufman, 1990). 예를 들어 임상에서 '지능'이라고 하면 곧 Wechsler 지능검사에서 산출한 IQ를 의미할 정도이다. Wechsler 지능검사의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내 임상현장에서 KWIS와 K-WAIS의 사용을 두고 일종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임상가들의 관심이 필요한 지극히 중요한 이슈이다. 둘째로, 만약 KWIS와 K-WAIS 중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지능 측정에 현실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면, 둘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임상가 개인의 취향에 맡겨질 비교적 '사소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KWIS를 사용할 시 산출되는 IQ와 K-WAIS를 사용할 시 산출되는 IQ 간에는 거의 언제나 매우 큰 차이가 있다(본문 참조). 그러므로 'KWIS와 K-WAIS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지능 측정의 타당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극히 중요한 선택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임상가 개인의 취향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는 것이며, 진지한 학문적 고찰이 필요한 이슈이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Wechsler 지능검사의 신판이 나올 때마다 일종의 과도기가 있었다. 이러한 과도기 동안에는 구판과 신판의 Wechsler 지능검사를 사용하는 임상가들이 혼재하지만 그 뒤에는 신판의 사용으로 자연스럽게 통일되었다. 과도기 동안에 구판이 사용되는 것은 신판의 타당도에 대한 의심 보다는 검사를 갑자기 바꿀 수 없는 현실적 이유들을 주로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임상가가 WAIS를 이용하여 검사자료를 장기적으로 수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WAIS-R로 갑자기 바꿀 수 없는 경우이다. 국내에서는 K-WAIS가 출간된 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므로 이러한 과도기적 기간은 지났다. 그러므로 현재도 일부 임상 현장에서 KWIS가 사용되는 것은 과도기적 이유가 아니라 K-WAIS의 타당도에 대한 적극적 의심을 반영한다고 추정된다. 그러므

로 다음 본론에서는 이러한 의심들의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KWIS와 K-WAIS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이슈의 결론에 이르려고 한다. 미리 밝혀 두지만 본 저자의 의도는 KWIS 또는 K-WAIS를 사용하는 어느 한 편의 임상가들을 편하하려는 데 있지 않다. 다만 'KWIS와 K-WAIS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가 충분히 중요한 임상적 이슈이기 때문에 저자 나름의 학문적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느낄 따름이다.

## 본 론

K-WAIS의 타당도에 대한 의심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세 종류의 의심을 차례대로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K-WAIS 일부 문항의 타당도가 낮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모양맞추기'의 마지막 문항인 '호들이'는 타당성이 낮은 문항으로 자주 거론된다. 문제점으로는 호들이가 1988년도 서울올림픽의 마스코트였기 때문에 88올림픽을 적극적으로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간에 문항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지적 자체는 상당 부분 합리적이다. 그러나 타당도에 문제가 있는 문항들이 K-WAIS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KWIS에도 일부 존재한다. 예를 들어 KWIS의 '빠진곳찾기'를 보면 트럼프와 관련된 문항이 있다. 이 문항은 트럼프가 한국인의 보편적 문화경험이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 더구나 '시간'이 지나서 타당도가 저하된 문항들로 말하면 K-WAIS 보다 KWIS에 더욱 많음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KWIS의 '상식문제'에서 '우리나라 부인의 키는 보통 얼마나 됩니까?', '대한민국의 인구는 얼마입니까?', '현 행정부 장관은 몇 사람입니까' 등의 문항들은 모두

타당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물론 이러한 문항들은 채점 기준을 수정하여 타당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므로 문항의 타당도라는 관점에서 KWIS 보다 K-WAIS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

둘째는 K-WAIS의 표준화 과정에서 오류 사례들이 개입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K-WAIS 표준화에서 부주의한 '검사자'나 무성의한 '피검사자'가 일부 개입되어 적절치 못한 사례들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검사자가 채점에서 오류를 범한 사례들 또는 피검사자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례들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지만 불성실한 검사자나 피검자에 의해 '위조된' 사례가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K-WAIS의 표준화에 오류 사례들이 실제로 포함되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부재하다. 그러나 K-WAIS처럼 1000명 이상의 피검자들이 소요된 대규모 자료 수집에서 오류 사례의 일부 개입은 사실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오류 사례가 일부 포함되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K-WAIS와 같은 대규모의 검사 제작에서 제작자의 현실적 목표는 오류 사례의 '제로화'에 있다기 보다 최대한 낮추는 '품질 관리(quality control)'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류 사례의 포함에 대한 평가는 실무(all or none)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도의 관점에서 행해져야 한다. 저자가 알기로 K-WAIS의 제작에서 오류 사례의 포함이 여타 지능 검사, 예를 들어 KWIS 보다 높다는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오류 사례의 포함이라는 관점에서 KWIS 보다 K-WAIS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

셋째로 K-WAIS에 대한 문제 제기 중 가장 널

리 피력되며 진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은 규준이 너무 높다는 의심이다. 이러한 의심은 보통 'K-WAIS로 지능을 평가하면 KWIS로 평가하는 것에 비해 IQ가 너무 낮게 나온다'는 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신평 지능검사에서 산출된 IQ가 구판 지능검사에서 산출된 IQ에 비해 낮은 것은 세대별(또는 cohort별) '지능 상승'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Flynn, 1987).<sup>1)</sup> 세대별로 지능이 상승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지능을 신평검사의 규준에 의거하면 구판검사의 규준에 의거하는 것에 비해서 IQ가 당연히 낮게 산출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WAIS와 WAIS-R에서 산출된 IQ를 비교하는 연구가 20여편 이상 출간되었다. Kaufman(1990)이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한 바에 따르면 WAIS-R이 WAIS에 비해 평균적으로 VIQ는 6.3점, PIQ는 6.5점, FIQ는 5.9점이 낮게 산출된다. 20세기 들어 세대별로 사람들의 지능수준이 꾸준히 상승한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를 교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화적 경험(예, 매스미디어)에 노출된 정도가 세대별로 꾸준히 상승한 것과 관련시킨다(Flynn, 1987; Lynn & Hampson, 1986). 또한 이러한 지능 상승이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진정한' 지능 상승은 아니며 지능검사형 문제들을 푸는 기술(skills)의 상승으로 해석한다. 어쨌든 이러한 세대별 지능 상승을 반영하여 지능검사의 재표준화에는 신평검사의 IQ

가 구판검사의 IQ에 비해 낮은 현상이 사실상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그러므로 K-WAIS의 IQ가 KWIS의 IQ에 비해 낮은 것 자체는 K-WAIS의 타당도에 대한 지지의 증거이지 의심의 증거가 아니다.

그러나 K-WAIS에서 산출되는 IQ가 KWIS에서 산출되는 IQ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다면 이는 타당한 문제 제기일 수 있다. K-WAIS에서 산출되는 IQ가 KWIS에서 산출되는 IQ에 비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 낮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그러나 K-WAIS의 규준과 KWIS의 규준을 비교해보면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바뀌쓰기' 소검사의 경우 K-WAIS와 KWIS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양 규준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다른 소검사들은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적 비교가 불가능하다). 표 1에는 KWIS 환산점수 10점에 해당하는 '바뀌쓰기' 원점수가 K-WAIS에서는 환산점수 몇 점에 해당하는지가 연령별로 제시되어 있다. '바뀌쓰기'의 환산점수가 K-WAIS에서 KWIS에 비해 낮은 정도는 연령별로 최저 1.5점에서 최고 5점에 이르며 평균적으로는 3점이다. 이를 IQ점수 단위로 전환하면 K-WAIS의 IQ가 KWIS의 IQ에 비해 낮은 정도가 최저 7.5점에서 최고 25점, 평균적으로는 15점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물론 '바뀌쓰기'에 근거한 결과를 전체 지능검사에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바뀌쓰기'의 결과를 전체지능검사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치'로 보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표 1의 자료는 K-WAIS에서 산출되는 IQ가 KWIS에서 산출되는 IQ에 비해 약간 낮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낮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은 대부분의 임상가들의 실제 경험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어쨌든 논의를 위하여 K-WAIS에서 산출되는

1) 여기서 '세대별 지능 상승'이 의미하는 바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20대인 사람들의 평균지능이 지금 현재 60대인 사람들의 평균지능에 비하여 높다는 것이 아니다. 세대별 지능 상승이 의미하는 바는, 예를 들어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20대가 되었을 때의 평균지능이 194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20대가 되었을 때의 평균지능에 비하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바뀌쓰기' 수행에 근거한 KWIS와 K-WAIS의 점수 비교

연령(세)	바뀌쓰기 원점수	KWIS 연령별 환산점수	K-WAIS 연령별 환산점수	KWIS와 K-WAIS의 차이	
				환산점수단위 (SD = 3)	IQ점수단위 (SD = 15)
16~17	46~49	10	5	5	25
18~19	46~50	10	5~6	4.5	22.5
20~24	45~49	10	6	4	20
25~34	42~46	10	7~8	2.5	12.5
35~44	35~39	10	8~9	1.5	7.5
45~54	26~30	10	8~9	1.5	7.5
55~64	15~18	10	8	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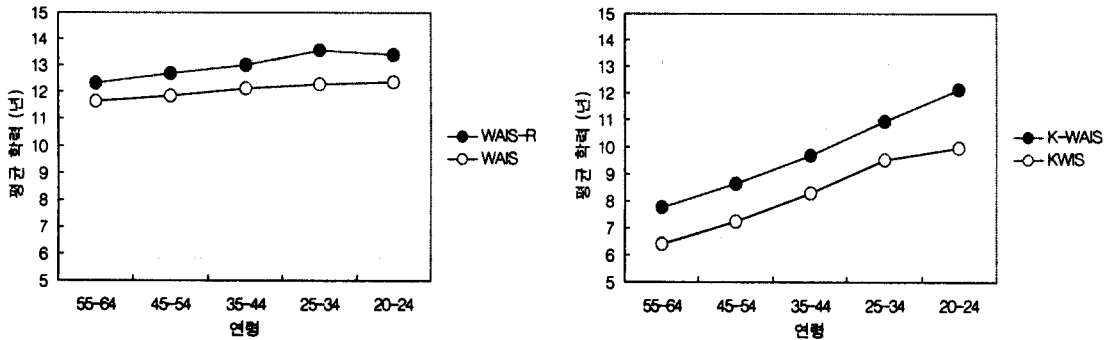


그림 1. WAIS/WAIS-R의 표준집단(좌측그림)과 KWIS/K-WAIS의 표준집단(우측그림)의 연령별(즉 세대별) 평균학력. 평균학력은 표 1과 표 2에 제시된 학력분포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음. 평균학력 산출시 각 학력 범주에서 최대치(예, 0~6년의 학력이면 6년)를 대표치로 사용하였음.

IQ가 KWIS에서 산출되는 IQ에 비해 약간 낮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는 K-WAIS의 타당도를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 본 저자의 견해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세대별로 지능수준이 상승한 정도가 미국에 비하여 한국에서 훨씬 급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의 하나는 세대별로 학력이 상승한 정도가 미국에 비해 한국에서 훨씬 가파른 점이다.

그림 1은 WAIS/WAIS-R 표준집단과 KWIS/K-WAIS 표준집단의 연령별 평균학력을 도시한 것이다. 각 표준집단의 보다 자세한 학력분포는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을 보면 세대별로 학력이 상승하는 정도가 WAIS와 WAIS-R에 비해 KWIS와 K-WAIS에서 훨씬 가파름을 쉽게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55-64세 세대와 20-24세 세대의 평균 학력 차이가 WAIS와 WAIS-R에서는 각각 0.7년과 1.1년에 불과하지만, KWIS와

표 2. WAIS와 WAIS-R 표준집단의 연령별 학력 분포

연령(세)	출생년	학력 분포(%)		
		11년 이하	12년	13년 이상
WAIS				
55~64	1890~1899	77.5	11.5	11.0
45~54	1900~1909	70.5	15.5	14.0
35~44	1910~1919	59.5	22.5	18.0
25~34	1920~1929	48.0	32.5	19.5
20~24	1930~1934	44.0	36.0	20.0
WAIS-R				
55~64	1916~1925	43.5	37.0	19.5
45~54	1926~1935	34.5	40.0	25.5
35~44	1936~1945	26.0	42.5	31.5
25~34	1946~1955	17.0	39.5	43.5
20~24	1956~1960	17.0	43.5	39.5

주. Kaufman (1990)의 Table 7.1에 제시된 자료에 근거하였음.

출생년은 피검자가 검사된 연령이 WAIS는 1954년, WAIS-R은 1980년임을 가정하고 산출한 것임.

표 3. KWIS와 K-WAIS 표준집단의 연령별 학력 분포

연령(세)	출생년	학력 분포(%)			
		0-6년	7-9년	10-12년	13년 이상
KWIS					
55~64	1898~1907	93.8	.6	4.5	1.1
45~54	1908~1917	78.4	5.9	12.7	2.9
35~44	1918~1927	63.0	6.8	24.3	6.0
25~34	1928~1937	46.2	12.4	24.9	16.5
20~24	1938~1942	38.2	16.3	27.5	17.9
K-WAIS					
55~64	1927~1936	66.8	15.6	11.6	6.0
45~54	1937~1946	51.3	20.1	20.6	8.0
35~44	1947~1956	32.5	26.9	29.9	10.7
25~34	1957~1966	15.0	27.0	42.0	16.0
20~24	1967~1971	6.5	19.4	46.3	27.9

주. 출생년은 피검자가 검사된 연령이 KWIS는 1962년, K-WAIS는 1991년임을 가정하고 산출한 것임.

K-WAIS에서는 각각 3.5년과 4.4년에 이른다. 또한 KWIS 규준집단과 K-WAIS 규준집단 간의 학력차이는 WAIS 규준집단과 WAIS-R 규준집단 간의 학력차이에 비해 훨씬 현저하다(그림 1 참고). 이 자료는 한국에서 KWIS와 K-WAIS의 시간적 간격 동안에 일어난 지능 상승이 미국에서 WAIS와 WAIS-R의 시간적 간격 동안에 일어난 지능 상승보다 훨씬 가팔랐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신평 지능검사의 IQ가 구판 지능검사의 IQ에 비해 약간 낮은 것이 아니라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해야한다. 따라서 K-WAIS로 측정된 IQ가 KWIS로 측정된 IQ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 자체가 K-WAIS 규준을 의심할 충분한 근거는 될 수 없다.

### 요약 및 결론

K-WAIS가 출간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상 현장에서는 KWIS가 계속 사용되고 있다. 'KWIS와 K-WAIS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지능평가의 타당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극히 중요한 임상적 이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KWIS와 K-WAIS의 사용을 비교한 어떠한 경험적 또는 이론적 연구도 발표된 바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K-WAIS의 타당도에 대한 의심들이 얼마나 근거 있는 것인가를 분석함으로써 'KWIS와 K-WAIS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이슈의 결론에 이르러자 시도하였다. K-WAIS의 타당도에 대한 의심의 하나는 일부 문항들의 타당도가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심은 적어도 몇 문항에서는 정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타당도에 문제가 있는 문항들이 K-WAIS

뿐만 아니라 KWIS에도 있으며 오히려 후자에 더 많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문항의 타당도라는 관점에서 KWIS 보다 K-WAIS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 K-WAIS의 타당도에 대한 다른 의심은 표준화 과정에서 오류 사례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K-WAIS처럼 대규모의 검사 제작에서 오류 사례의 일부 개입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러한 오류 사례가 개입된 정도가 KWIS에 비해 K-WAIS에서 보다 심하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오류 사례의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KWIS 보다 K-WAIS를 낮게 평가하는 것도 근거가 약하다.

K-WAIS의 타당도에 대한 의심 중 가장 진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은 규준에 대한 의심, 즉 K-WAIS로 측정된 IQ가 너무 낮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평 지능검사에서 산출되는 IQ가 구판 지능검사에서 산출되는 IQ에 비해 낮은 것은 세대별로 지능이 상승된 것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는 지능검사의 재표준화에 사실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현상이지 신평 지능검사의 타당도를 의심할 근거는 아니다. 다만 K-WAIS에서 산출되는 IQ가 KWIS에서 산출되는 IQ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면 타당한 문제 제기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세대별로 지능이 상승한 정도가 매우 급격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는 신평 지능검사에서 산출되는 IQ가 구판 지능검사에서 산출되는 IQ에 비해 약간 낮은 것이 아니라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해야한다. 그러므로 K-WAIS로 측정된 IQ가 KWIS로 측정된 IQ에 비해 상당히 낮더라도 그 자체가 K-WAIS 규준을 의심할 충분한 근거는 될 수 없다. 오히려 K-WAIS로 측정된 IQ가 KWIS로 측정된 IQ와 거의 동일하거나 조금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K-WAIS 규준의 타당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근거

가 될 것이다. 저자가 보기에 K-WAIS로 측정된 IQ가 너무 낮다는 주장은 KWIS로 측정된 지능이 정확하다는 '선입견'에 기초한 일종의 '착시(illusion)' 현상이다. 그러나 그러한 선입견은 KWIS 규준이 제작된 지가 40년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정당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 착시가 제거된 올바른 현실은 K-WAIS로 측정된 IQ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라, KWIS로 측정된 IQ가 너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K-WAIS를 사용하는 것이 KWIS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훨씬 적절하다고 결론한다. 특히 저자는 한국처럼 세대별 지능 상승이 가파른 나라에서 40년전 규준(즉 KWIS 규준)으로 지능을 평가하는 것의 부적절성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부적절성의 예는 KWIS를 사용한 논문들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신분열증집단의 평균 IQ는 인지장애를 반영하여 80점대나 90점대로 보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강준호, 박영남, 유정아, 1999; 리광철, 오상우, 정일관, 백영석, 박민철, 2002; 박유경, 권혁철, 2000; Aylward, Walker, & Bettes, 1984). 그런데 KWIS를 사용한 일부 논문에서는 정신분열증집단의 평균 IQ가 110내외 또는 그 이상으로 보고된 바 있다.<sup>2)</sup> 이러한 결과는 표집의 특이성을 감안하더라도 KWIS의 사용에 따른 '과대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은 한국의 지능 상승이 급격한 점을 감안하면 KWIS는 물론이고 K-WAIS로 지능을 평가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의 과대평가가 개입될 수 있다(K-WAIS도 표준화한지가 10년이 지났음). 한국판 Wechsler 지능검사 규준의 타당도를 '미국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미국 보다 짧은 시간 간격을 둔 '재표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제한점으로는 주로 이론적인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한 점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KWIS와 K-WAIS의 '바뀌쓰기' 규준을 실증적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WAIS/WAIS-R 규준집단과 KWIS/K-WAIS 규준집단의 학력 분포도 실증적으로 비교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동일집단에 KWIS와 K-WAIS를 실시하여 양 검사의 점수 차이를 실증적으로 평가할 것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강준호, 박영남, 유정아 (1999). 정신분열병과 조증에서의 기억기능. *정신병리학*, 8, 66-76.

리광철, 오상우, 정일관, 백영석, 박민철 (2002). 정신분열증 환자의 인지 결함.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377-389.

박유경, 권혁철 (2000). 외상성 뇌손상 환자와 정신분열증 환자의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 상에 나타난 인지적 특성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351-363.

염태호, 박영숙, 오경자, 김정규, 이영호 (1992). K-WAIS 실시요강. 서울: 한국가이던스.

전용신, 서봉우, 이창우 (1963). KWIS 실시요강. 서울: 중앙교육연구소.

Aylward, E., Walker, E., & Bettes, B. (1984). Intelligence in schizophrenia: Meta-analysis of the research. *Schizophrenia Bulletin*, 10, 430-459.

Flynn, J. R. (1987). Massive IQ gains in 14 nations; What IQ tests really measure. *Psychological Bulletin*, 101, 171-191.

Harrison, P. L., Kaufman, A. S., Hickman, J. A., & Kaufman, N. L. (1988). A survey of tests used for adult assessment.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6, 188-198.

2) 특정 논문을 부정적인 맥락에서 지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 참고문헌을 적지 않는다.



- Kaufman, A. S. (1990). *Assessing adolescent and adult intelligence*. Boston, MA: Allyn & Bacon.
- Lynn, R., & Hampson, S. (1986). The rise of national intelligence; Evidence from Britain, Japan, and the U.S.A.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 23-32.
- Wechsler, D. (1939). *Wechsler-Bellevue Intelligence Scale (W-BIS)*. New York: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Wechsler, D. (1955). *Manual for the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WAIS)*. New York: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Wechsler, D. (1981). *Manual for the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WAIS-R)*. San Antonio, TX: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Wechsler, D. (1997). *Manual for the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III(WAIS-III)*. San Antonio, TX: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원고접수일 : 2003. 6. 2

게재결정일 : 2003. 12. 11

## Which One to Use, KWIS or K-WAIS?

Hongkeun Kim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Daegu University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ublication of K-WAIS, but some Korean clinicians still prefer using KWIS. Their preference for KWIS may reflect certain doubts about the validity of K-WAIS on their part. The most serious of the doubts is derived from the fact that IQs measured on the basis of K-WAIS are very low compared with IQs measured on the basis of KWIS. However, lower IQs using a new version of an intelligence test relative to an old version is related to a rise of intelligence across generations (or cohorts). Thus, the phenomenon is not specific to Korea but found in most other countries as well. In addition, in Korea in which the rise of intelligence is estimated to be very steep during the past decades, it is only natural to expect that IQs measured on the basis of a new version are not just low, but very low compared with IQs measured on the basis of an old version. Thus, the view that IQs measured on the basis of K-WAIS are very low is an illusion derived from the preconception that IQs measured on the basis of KWIS are correct. Considering the fact that rise of intelligence in Korea was very steep, a use of KWIS should result in severe overestimation of true intelligence. Thus, use of K-WAIS is strongly recommended.

*Keywords : Intelligence test, Standardization, Norm*